

# “회원사간 만남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여는 데, 최선 다할 터”



朴 載 福  
한국육가공협회장

**협회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협회로서는 산재해 있는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육가공업계의 집약된 힘이 더욱 절실 해지는 이 시점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여러가지로 미약한 본인에게는 크나 큰 영광이기에 앞서 어깨가 무거워 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협회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협회로서는 산재해 있는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밀물처럼 물려오는 수입개방이라는 외풍에도 의연히 대처 해 나가야 하고 돈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내우외환의 곤경에 빠져있는 업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협회는 긴밀한 회원사간의 만남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십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협회가 업계의 공통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지향해야 할 사안들을 나뉘대로 정리해 보면,

첫째, 회원사간 유대강화입니다.

회원사간의 지나친 경쟁은 돼지고기 통조림에 이어 축육제품까지 수입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우리 업계 전체가 제살까아 먹기식의 출혈 경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유통 및 가격면에서 상호 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몫을 지키는 당면과제에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품질 수준 향상입니다.

값싼 원료육을 바탕으로 가격면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되는 외국제품에 대해 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품질 향상이라는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는 외산과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제품 고급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원료육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국내 양돈업계가 수출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세가 지속, 고가현상을 보임에 따라 수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가공업계 또한 원료육 구입에 따른 부담이 날로 가중되어 제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각 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원료육 가격안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축산물 안정 기준가격대 설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넷째,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협회는 업계가 처한 내적, 외적 어려움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육가공 제품이 소비자들의 생활속에서 더욱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개발, 그에 따른 사용법이나 구매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동기를 부여 시장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회원사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째, 회의의 정례화입니다.

우리 협회가 처한 내, 외부적 환경요인을 회원사 모두가 진심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사회 및 기타 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믿고 회원사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가 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당장 해결해야 할 화급한 사안, 장기적으로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할 일들이 위에 열거한 것 보다 많이 있겠지만 협회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업계의 일체감도 더욱 긴밀해지고 업계 활성화를 위한 공통적인 교감이 발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회원사들에게 바라는건데 육가공협회가 우리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